

안전을 위한 나눔 운동 실시

- KFPA, 안전행정부와 안전문화 활동 협약 체결 -



KFPA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협약' 을 1월 1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하고, 안전활동을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등의 화재예방용품을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비상구 확인하기

및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양보운전에 대한 화재예방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안전문화' 라는 주제 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들을 새롭게 접목·발전시켜 추진하는 것으로, KFPA 외에도 7개 기업이 안전서비스·안전교육·안전캠페인 나눔 운동을 위해 함께 참여하였다.

KFPA 이기영 이사장은 “국민들이 자신과 가족, 동료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안전문화운동은 매우 의미있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 KFPA도 국민안전과 행복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안전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과 정부가 협력



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첫 번째 종합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안전문화운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행복의 시작점은 국민 안전에 있고, 민간기업 및 단체, 일반국민,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안전문화운동을 함께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독거노인 관계자 화재예방교육 실시



KFPA는 안전하고 행복한 독거노인의 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전국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신규 수행인력 1,2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독거노인 화재안전을 위해 지난 2012년 12월 KFPA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한 『독거노인 사랑잇기 MOU』의 일환으로, KFPA는 화재예방 소책자 시리즈 6,000부와 화재안전 자석스티커 4,000개도 함께 제공한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특성 및 주거환경의 문제점, 화재원인과 화재 시 대처요령, 안전생활수칙 등 독거노인에게 꼭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전문성을 두루 갖춘 KFPA 직원 및 전문강사들이 교육장소에 방문하여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KFPA의 화재예방교육 관계자는 “고립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독거노인은 노후화된 전기, 가스 및 난방설비를 사용하고,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이 부족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높다”며, “화재 시 긴급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독거노인 화재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KFPA는 2012년 독거노인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248개소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및 서비스관리자 2,826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독거노인 화재안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258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화재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국의 유아, 초·중·고생, 성인, 노인 등 다양한 교육대상에 맞는 맞춤형 방문 화재예방교육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 소외계층의 화재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